

CEO의 힘!... 2.2% 점유율, 4년 만에 5% 눈앞

# ‘치매보험 만루홈런’ DB생명 신계약서 ‘깜짝 4위’

10월 신계약 MS 6.5% ‘사상 최대’  
연령층 확대한 치매보험 실적 견인  
대표 연임 성공... 안정적 성장 전망

DB생명이 지난달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9월 출시한 치매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최근 생명보험업계의 틈새시장으로 치매보험이 뜨고 있어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10월 보장성 신계약 MS(Market Share·시장점유율) 기준 6.5%를 기록했다. 평균 MS가 4.6~4.8%였던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성장이다.

DB생명 관계자는 “10월 실적에서 회사 창립 이래 사상 최고 실적 신기록을 세웠다”며 “이는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 기준 생보업계 자산규모 16위인 DB생명으로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낸 셈이다.

DB생명은 보장성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보험사다. 보장성 상품 판매 비율이 전체의 96%에 달할 만큼 저축성 상품은 거의 판매하지 않는다.

10월 들어 실적이 급증한 배경은 9월 말 출시한 치매보험이 인기를 끌면서다. 지난달 신계약 월납 초회보험료는 37억원으로 이중 16억원이 치매보험 판매였다.



이태운 DB생명 대표이사 /DB생명

DB생명은 지난 9월 17일 각 치매단계별 진단금 지급과 간병자금을 평생 지급

하는 ‘(무)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무해지환급형)’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 나이를 30~75세로 확대해 고연령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기간도 85세, 90세, 95세 만기로 다양화해 선택권을 넓혔다. 특히 중증치매에 따른 간병자금을 최대 종신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최근 치매보험이 틈새시장으로 떠오르면서 DB생명의 하반기 실적 전망은 밝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치매환자 수는 약 76만명으로 전체 노인 대비 유병률은 10.32%에 달한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인 점을 고려하면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DB생명의 상반기 성적도 좋았다. DB

생명은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7.3% 줄었으나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75억원) 대비 54.5% 늘어난 42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200억원에서 317억원으로 58.5% 늘었다.

이태운 대표가 지난해 말 한차례 연임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대표 취임 이후 2014년 2.2%였던 보장성 신계약 MS는 2015년 3.1%, 2016년 3.9%, 2017년 4.6%로 증가 추세다.

DB생명 관계자는 “업계 MS는 소수점 0.1% 올리기도 쉽지 않다”며 “올해는 5.0%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BNK부산은행-부산시 200억 일자리펀드 조성

대출 한도 업체별 최대 3억원

BNK부산은행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시와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 펀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BNK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시는 총 200억원의 일자리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각 1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금융지원이 필요한

고용 창출 실적 우수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 부산은행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와 ‘대출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한 부산지역 내 중소기업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별 최대 3억 원이다.

금리는 업체별 산출금리에서 1.80%포인트 감면되고,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등은 추가로 0.1~0.2%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ri15@

## ‘외국인 투자유치’ 은행권 왕좌는 KEB하나銀

유공자 시상식서 대통령상  
개인부문 산업부장관 표창

KEB하나은행은 지난 5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8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과 개인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수출증대 등 우리경제에 기여한 외투기업 및 투자유치 유공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2013년 이후 6년 연속 개인부문 수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단체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금융기관임을 공인받았다.

KEB하나은행은 ▲1999년 국내은행 최초로 외국인 전담 투자센터(FDI·Foreign



박지환 KEB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전무(왼쪽에서 두번째)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 세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 Direct Investment)를 신설한 이후, 현재 ▲명동, 강남, 부산, 제주 등 전국에 4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며, ▲은행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Global 1Q Bank)에도 다국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 및 외투법인 대상의 다양한 특화 금융상품을 출시 하였으며 ▲외국인투자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국인직원을 채용했고, 무엇보다

▲146개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해 활발한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환 KEB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 전무는 시상식에서 “향후에도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전문은행』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은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하며, KEB하나은행에 대한 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 교보생명

## 새 캐릭터 ‘교보러버스’



교보생명은 2030세대와 친근하게 소통하고 고객들에게 한결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가족사랑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캐릭터를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새로운 캐릭터는 신라시대 금관 장식물인 곡옥을 모티브로 해 교보생명의 초성(교·보·생·미)을 원색 계열의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했다.

새책과 열매를 상징하는 곡옥을 통해 생명과 희망의 소중함을 형상화한 것으로 고무의 질감을 살린 부드러운 디자인

에 가족사랑의 의미를 담았다.

새 캐릭터 이름은 ‘교보러버스’로 고무처럼 둥글게 부푼 모습(Rubber)과 애호가, 팬(Lover)을 의미하는 영단어 러버에서 따왔다.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는 척척박사 ‘고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는 가족지킴이 ‘보보’, 소소한 일상 속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꾼 ‘소소’, 꿈과 희망을 찾아 언제나 도전하는 모험가 ‘모모’로 구성됐다.

/김희주 기자

## 삼성카드 모바일학습 스타트업 매스프레소와 MOU

삼성카드가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통한 공유가치창출(CSV) 경영의 일환으로 모바일 학습 플랫폼 스타트업 ‘매스프레소’와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6일 밝혔다.

매스프레소는 기술을 통해 소득이나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 해소를 목표로 2015년 6월 설립됐다. 특히 2016년 1월 국내 최초로 문제 풀이 및 해설 데이터베이스(DB) 검색 서비스를 함께 갖춘 모바일 학습 플랫폼 ‘판다’를 출시해 교육소외지역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판다 앱에 모르는 문제를 사진을 업로드 하면 9000여명의 서울대, 카이스트 등 명문대 출신의 검증된 튜터들이 작성한 DB에서 해설을 무료로 5초 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이번 업무제휴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판다 1개월 유료 이용권을 삼성카드 결제 시 1개월 이용권을 추가로 제공하는 ‘1+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나유리 기자

## 신한은행 ‘쏠’ 해외 데뷔... 베트남 버전 출시

맞춤메뉴 서비스 현지화

신한은행은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모바일 통합 플랫폼 쏠(SOL)의 베트남 은행 버전인 ‘신한은행 베트남 쏠(Shinhan Bank Vietnam SOL)’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2월 출시한 신한 쏠(SOL)은 국내에서 혁신적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기반으로 재테크, 부동산, 빅데이터 등으로 폭넓은 콘텐츠 확장을 이뤄가고 있다. 로그인 한 번으로 간편하게 정리된 계좌정보와 편리한 기능을 담은 초기화면, 해시태그 도입 등으로 출시 이후부터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Shinhan Bank Vietnam SOL’ 출시를 통해 베트남에서도 쏠(SOL)의 우수한 UI·UX로 사용 편의성을 높인 बैं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국내 고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서비스인 ▲삼성패스, 아이폰 Face ID를 포함한 ‘로그인 방식 다양화’ ▲이체기능을 한 화면에



통합하고, 등록된 이체 정보로 한번에 송금할 수 있는 ‘원클릭 송금’ ▲휴대폰 번호와 수취인 성명만 입력하면 계좌번호 없이도 이체할 수 있는 ‘연락처 이체’ ▲고객별 초기화면 내 메뉴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맞춤메뉴 서비스’를 현지화해 제공하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초맞춤과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쏠이 해외에 데뷔하게 됐다”며 “신한금융그룹 신성장 동력의 핵심 영역인 디지털·글로벌 전략을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제56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11월 14일~12월 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11월 17일~12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응선) : 300,000 → 130,000원  
11월 25일(일), 12월 2일(일), 12월4일(화)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